



비목구사 선인의 법문

선재동자는 후사 우바이로부터 남쪽 바다 조수 이는 곳의 나라소(羅羅)라는 나라에 비목구사(毘目瞿沙)라 불리는 신선을 찾아가 보살행에 대해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나라소국에 이르러 비목구사를 찾아보니 그는 큰 숲속에 있는 전단나무 아래에서 풀을 깔고 앉았는데 일만이나 되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동자가 보리심을 낸 것을 찬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비목구사는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것발의 해탈(無勝幢解脫)을 얻었노라." 이 말을 들은 선재동자가 그 해탈의

일념의 순간 부처님 경계와 하나됨 설해 자연의 지혜로 모든 중생 끊임없이 교화

경계가 어떠한가를 묻자, 비목구사선인은 오른 손을 펴서 선재의 정수리를 만지며 선재의 손을 잡았다. 그 때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시방으로 심불할 미진수 세계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 가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세계와 거기에 모인 대중과 부처님의 상호가 훌륭하게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또한 그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설법하는 것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저 부처님이 가지가지 지혜로 모든 서원을 원만히 하는 것도 보고, 저 부

처님이 청정한 서원으로 모든 힘을 성취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그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일주야 혹은 이레를 지내기도 하고 내지 미진수 겁을 지내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그 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무승당해탈의 지혜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비로자나장 삼매의 광명을 얻는 등 다섯 가지 지혜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다섯 가지의 삼매광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비목구사선인이 선재의 손을 놓으니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다시 본래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비목구사 선인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며 손을 잡는 순간에 선재동자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갔다가 마음을 설하여, 일념(一念)의 순간에

살의 무승당해탈법문으로써 설하고 있는 것이다.

비목구사는 범어 비수뫼타라 니르코사의 줄임말로써 그 의미는 '일체의 소리로서 중생세계의 두려움을 없애고 안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인(仙人)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정하고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명칭이 나라소인 것은 그 의미가 청정한 지혜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목구사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은 바다의 조수가 이는 곳이다. 이것은 해조가 저절로 끊임없이 드나드는 것처럼, 보살이 인위적이지 아닌 자연의 지혜로써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알맞게 끊임없이 교화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 일념에 의해 부처님의 경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발원해서 스스로의 참생명에서 솟아나오는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과거 무량겁 전에 발심해서 영겁에 걸쳐서 발심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수행자는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정신을 본받아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하였던 것을 일념의 순간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념의 순간에 청정한 지혜가 발동하여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살의 무승당해탈은 보리심에 근거한 발원에 의해 청정한 지혜 광명이 자연스레 작용하여 끊임없이 중생들을 자비로써 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부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생명체, 너는 누구인가?

과연 최소한 우리가 인식하듯 감정이나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의 생명체는 몸과 정신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의학 중에서 백신 접종이나 암의 연구 등으로 알려진 면역학에서는 생물이 자기를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 체내의 면역체계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것이 나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신체의 자기라고 말한다면 지금의 생물의 의식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 체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뇌의 어느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인식작용을 담당하는지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전혀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신체적 자기를 어찌 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신경계에 바탕을 두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 것이라는 말이다.

본래의 나는 하늘을 날고, 바다 속을 거닐며, 불속을 거침없이 다니는 모습인 것이다. 갓 난 어린아이를 보라. 그들은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무 겁 없이 걸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깊은 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다가 빠지기도 하며 뜨거운 불에 손을 넣기도 한다. 이것을 과학이라는 사물(事物)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신경계가 발달하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가고 움이 없는 생명의 시점으로 보

내 몸인데 왜 내말을 듣지 않는 걸까? 접대기인 육체를 '내것'·'나'로 착각

이는 신경계가 정신적인 나를 규정하는 기본적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현대의학의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별개의 체계로 알려졌던 이러한 면역계와 신경계가 실제로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면역전달 물질과 신경전달물질이 서로 공유되기도 하면서 커다란 하나의 체계임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체에 바탕을 둔 서양과학의 관점으로 자기를 이루는 것이 신체적 자기와 정신적 자기의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신체적 자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신체적 자기가 나의 일부이기에 기본적으로 내 명령을 들으며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는 전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면 그 자유롭고 시공(時空)에 거집없는 생명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를 뒤집어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와 더불어 길들여져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본래의 진면목은 이렇게 내 말도 전혀 듣지 않는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는 육체에 길들여져 가면서 육체에 의해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며 나라는 것을 형성해 간다.

결국 생명체는 진정한 본래 면목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접대기인 육체를 통해 나라는 생각을 지니게 되면서 전신 신체적 자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육체와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허망한 자기라는 의식을 붙들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여 깔고두고 울고 불며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풀

선교일치와 교외별전

송대 간화선의 발전은 북송과 남송 시대를 구별하여 이해할 수가 있다. 북송에서 임제종의 황룡파는 간화선의 사상적인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룡파는 당대에 유행하는 선교일치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교외별전의 사상을 확립하였다. 이런 교외별전의 사상에 힘입어서 간화선은 남송 때 임제종 양기파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공부의 과정은 바로 경전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전통은 대승불교에서 대체로 충실하게 계승됐다. 이런 점에서 보조도 화엄의 가르침과 수행론을 '먼저 듣고 이해하여 믿음에 들어가고 뒤에 생각 없음(無思)으로 딱 들어맞

지는 것을 방지하여 준다. 그리고 자신이 도달한 경지가 어디에 와 있으며, 경전에서 기술한 내용과 함께 대조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전의 가르침도 여전히 개념적이고 지식이란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강한 의미의 선교일치론은 수행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끝내는 관행(觀行) 방법에 두고, 이해하는 말길(語路)과 뜻길(義路)이 있다. 때문에 분별에 의지한 까닭에 분별이 없는 지혜(無分別智)를 얻지 못한다고 보조는 본다. 선교일치

전(別傳)이란 어떤 가르침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언어적인 개념에 의지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다. 언어가 아닌 체험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느낌과 빠짐이 없고, 순서와 절차가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분석적인 마음에 불과하다. 간화선에서 법계언어를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언어와 뜻 길 이 끊어진, 그 자체로 일컫는 방식인데, 이것은 바로 화두를 통해서 성취된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듯이, 경전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법성과 자신의 의심을 결단하는 탐색에 의해서 깨우쳐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경전적인 근거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불교와 불교 아닌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 스승의 절대적인 점검과 지도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다음주부터는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교수가 '조주목'을 중심으로 연재합니다.

듣고 이해하여 믿음에 들어가 증득

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먼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승(聲聞乘)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해하고 믿음에 들어가서 증득하게 된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의 장점은 공부하는 길에서 분명한 기준점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경전의 말씀은 사뭇 믿음에 떨어

는 완전하게 개념의 흔적을 버리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교외별전은 경전의 가르침마저도 완전하게 벗어나는 자유의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교외(敎外)란 개념적인 지식의 체계가 아닌, 개념적인 지식이 체계가 아니다. 개념적인 관점이 사라진, 분별과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 존재한 그대로의 실상을 의미한다. 별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